



어린이날 100주년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
어린이라는 호칭을 다시 보고,
우리가 직접 **어린이 선언**을 다시 써보아요.

어린이의 어림은 크게 자랄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 시대 때 어린이의 인권을 높이고
어른과 같이 한 사람의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높여서 평등하게 하고자 했던 호칭 어린이,
현재 어린이는 어떻게 불리워지나요?

라고 부르시오
어린이



어린이 선언 참고 작품



방정환 탄생 120주년 | 제 97회 어린이 날

어린이 선언 공모전

2019년은 방정환 선생님 탄생 120주년이자, 제 97회 어린이날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방정환재단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했던 그 뜻을 오늘에 되살려 어린이의 목소리가 담긴 <어린이선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923년에 발표되었던 <어린이 선언>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어린이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담긴 <2019 어린이 선언>을 만들어 보아요. 2019년, 오늘은 어린이가 직접 선언하는 <어린이 선언>의 해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꿈꾸었던 '어린이가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뜻 깊은 선언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어린이'라는 호칭 다시보기

- Q1.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에 서로를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 있나요?
그렇게 불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 Q2. 어린이와 어린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그렇게 불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린이가이어쓰는 어린이 선언

1923년 어린이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2. 어린이를 놀갓가히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3. 어린이에게 敬語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4. 理髮이나 沐浴, 衣服가튼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5. 잠자는 것과 運動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6. 散步와 遠足가튼것을 각금각금식혀 주시오
7. 어린이를 희망할 때에 는 쉽게 칭찬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2.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3. 어린이에게 경어(존중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4.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가이어쓰는 어린이 선언

1923년 어린이 선언



— 어른에게 드리는 글 —

어린이동무들에게
1. 모든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
기도 합시다
2.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
끼리 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3. 뉘스간이나 "당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리지 말
기로 합시다
4. 길가에서 벼를 지어 놀거나
류리가 뜬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
시다
5. 꽃이나 풀을 억지 말고 동물들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6. 던차나 피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7.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6. 산보와 원족(소풍, 나들이)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8.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9.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가이어쓰는 어린이 선언

1923년 어린이 선언

— 어린 동무들에게—

1. 돈은 해와 지는 해는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2.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3.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4.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5.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6.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7.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소
2. 어린이를 놀갓가히하사 자
이야기하여주소
3. 어린이에게 敬語를 쓰시되
보드럽게 하여주소
4. 理髮이나 沐浴、衣服가튼 것
을 마춰하도록 하여주소
5. 잠자는 것과 運動하는 것을
分히하게 하여주소
6. 散步와 遠足가튼 것을 각
급식혀주소
7. 어린이를 칭망할 때에는
게 칭만 내지 마시고 자셰자셰
타일려주소

어린이가 이어쓰는

어린이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무엇을 들렸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 합니다!
- 1. 아이들에게 ~~강~~ 화 대신 격려, 위로를 자주 합니다
- 1.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나의 어린이 선언에
참여하는 방법(어른편)

어른 속 어린이 인터뷰하기

Q1. 선생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예) 이영중 어린이는 일기를 밀리지 않고 쓰는 어린이였습니다.

Q2. 과거의 그 어린이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한마디를 해 준다면?

예) 주어진 과제를 정성껏 마음다해 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워!

Q3. 선생님의 어린이 시절의 눈으로

지금 현재의 어른에게 드리는 글을 한문장 써주시겠어요?

예) 어린이도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스럽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가 이어쓰는 어린이 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무엇을 들렸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 합니다!
- 1. 아이들에게 화 대신 격려, 위로를 지킵니다
- 1.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봅시다!

2 어린이 동무들에게.

- 1. 모두를 존중 합니다!
- 1.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 1. 어른들 한테 예의를 갖춥니다!



나의 어린이 선언에
참여하는 방법(어린이편)

- 1. 2022년 버전으로 새로운
어린이 선언 문장 생각하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나 어린 동무들과 함께
하는 선언 모두 가능해요.)



어린이가이어쓰는 어린이 선언

2. 몽이 포스트잇에 2022년 버전으로 새로운 어린이 선언 한 문장 쓰기 -> 게시하기



어린이의 소리

학년 반 이름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하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들이 하는 행동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주세요.



어린이의 소리

학년 반 이름

어린이들 에게

1 어른들이 혼내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모두 당신을 위한 거니 까요.

1 자신 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최고의 언니, 오빠입니다.